

형제관계

Sibling Relationships

박영애(Young Yae Park)¹⁾전귀연(Gwee-Yeon Jeon)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Korean literature concerning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and investigate facts and trends, research issues, and pragmatic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sibling relationship development. Most of the past research has been concerned with the effects of sibling status/structure variables on sibling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llectual, social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recent years, however, considerable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sibling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such relationships. More specifically, sibling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of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gin to draw attention of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This review consists mainly of two parts : one on siblings of children with no disabilities and the other on siblings with one disabled child.

Key Words : sibling relationships(형제관계),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장애아의 형제), literature review(문헌고찰).

I. 현 황

형제자매관계는 한 개인의 삶 동안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며, 인간은 형제자매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원형들을 연습하고 시험해 보는 장을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낮은 출

산율은 형제수의 감소와 외동이의 증가를 예견하게 하고 있어, 형제자매관계의 의미와 발달적 기여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고찰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본 연구는 최근 30년간의 형제자매관계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¹⁾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²⁾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Gwee-Yeon Jeo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 Dong, Puk-ku Taegu 702-701, Korea
E-mail : gyjeon@knu.ac.kr

로 분석하고, 연구쟁점을 정리하며 실제적, 정책적 이슈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제”라는 주제로 1980년 이후의 논문들을 검색하였으며, 연구물의 형태는 석·박사 논문(특수대학원 제외), 학회지 논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논문집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청소년기까지만을 포함시켰고, 선정된 연구물은 크게 일반 형제자매 관련 연구(전귀연)와 장애아 형제자매 관련 연구(박영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후 사용되는 형제라는 용어는 형제자매를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다.

1. 연구 주제 및 방법 관련

형제관련 연구의 주제별 분류는 제목 중심의 대분류이며, 비장애 형제관련 자료와 장애 형제관련 자료 전체를 연대별, 주제별로 분류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형제관계에 관한 또는 형제/형제관계를 연구변인으로 포함하는 연구물의 총 편수는 115편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80년대에 비해 90년대에는 9배, 2000년대(2009년 8월 현재)에는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표 1> 형제관계 연구의 연대별, 형태별, 주제별 분류

연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장애 유무	연구물형태											
	주제											
	기질/성격				3			1	3		7	
	자존감/자아개념				2	1	2			1	6	
	사회성/사회적능력				1		1	1	4		7	
	성역할	1						1			2	
	정서지능							2			2	
	친사회적행동						1				1	
	형제관계/상호작용	2			3		2	2	3		12	
	대인관계성향				1						1	
	일반 형제	친구관계				1		1			1	3
		또래/부모애착							1	1		2
		양육/부모자녀관계				1		1	1	3		6
		정서/행동문제	1			1			4	1	1	8
형제갈등/폭력					1			7		4	12	
가족치료/놀이치료								1	1	1	4	
형제관계이해										1	1	
학습관련					1						1	
일반형제 소개(연구물 형태별)												
4		0	0	0	15	1	8	1	19	4	21	2
일반형제 소개(연대별)												
4			25			46						

<표 1> 계속

연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장애 유무	연구물형태 주제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석사	박사	학회지 논문집	
장애 형제	장애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태도				1		1	1			1			4
	비장애형제의 자존감/자아개념				1			1		2				4
	비장애형제의 부담 /어려움/욕구						1		1	2	1			5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							1		1				2
	비장애형제의 우울/문제행동/적응				1				3					4
	형제관계/상호작용				2		1	5	3					11
	심리사회발달/ 사회성숙도						1			1				2
	비장애형제 생활경험 범주화										1			1
	장애형제의 사회성 향상						1		1	1				3
	장애형제의 인지/ 의사소통능력향상						1			3				4
장애형제 소계(연구물 형태별)		0	0	0	0	5	0	4	2	13	0	14	2	40
장애형제 소계(연대별)		0				11				29				
비장애·장애 합계(형태별)		4	0	0	0	20	1	12	3	32	4	35	4	115
비장애·장애 합계(연대별)		4				36				75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는 비장애 형제의 경우는 형제관계와 형제간 상호작용, 형제간 갈등과 폭력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정서/행동문제, 사회성/사회적능력, 기질/성격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형제의 경우도 형제관계/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히 다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 특히 증가한 연구주제는 비장애 형제관련 부문에서는 사회적 능력, 정서/행동문제, 형제간 갈등/폭력 등이 있고, 장애 형제관련 부문에서는 비장애형제의 욕구/어려움/부담, 비장애형제의 우울/문제

행동/적응, 형제관계/상호작용 등이 있다.

연구변인에 따른 분류 결과 <표 2>를 보면, 일반 형제 연구의 형제구조 변인은 가장 보편적으로 독립변인처럼 활용되면서 그것이 아동의 개인적(성격,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성역할 등), 관계적(형제관계, 친구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특성과 역량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형제관계의 질은 아동의 다양한 개인적, 관계적 특성들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는지 뿐 아니라, 그것이

<표 2> 형제관계 연구의 변인구성 현황(일반 형제)

독립변인	종속변인	편수
형제구조변인 (형제수, 터울, 출생순위, 성구성)	친구관계, 사회적 능력, 형제관계 질, 형제상호작용, 부모자녀관계, 양육행동, 정서지능, 친사회적행동, 성역할선호, 공격성, 성격, 형제갈등과 모 해결전략 등	22 ¹⁾
형제관계의 질 (온정/친밀, 상대적 지위/권력, 갈등, 경쟁의식)	성격, 외로움, 정서지능,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등	9
기질, 부모특성, 형제자매역할기대와 수행, 모 양육행동과 갈등상황 개입행동, 가정유형(그룹홈)	형제관계의 질	8
모 개입여부, 모 개입유형	형제갈등의 해결과정	2
가족기능, 아동학대, 부부폭력, 부모자녀관계, 인터넷게임중독	형제간 폭력 가해	4
가족치료/놀이치료 등의 프로그램	어머니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형제간 상호작용, 형제관계	4
상관 연구 변인		
형제관계의 질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성향, 정서 또는 행동문제, 또래/부모애착, 또래유능성, 모 양육태도	8

1) 순수하게 형제구조변인에 따른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물의 편수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변인들 및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동/부모/형제관계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 기타 변인들로는 형제기질조합에 따른 형제상호작용,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형제의 사회성, 부모애착, 모니터링과 조망수용에 따른 부모, 형제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형제관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특성에 따른 형제의 질투정서와 비조절행동, 친밀감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등이 있었다.

장애 형제 연구의 변인 구성에서도 형제지위·구조 변인은 빈번히 독립변인처럼 사용되지만, 다른 점은 이 구조변인에 장애관련 변인들(장애 유무/유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들 변인들은 그들 간 또는 가족·부모·가정환경변

인들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 사용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그 프로그램 자체 또는 그에 내장된 변인들이 독립변인의 역할을 한다. 주요 평가/종속변인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문헌연구 및 극소수 연구에서 다루어진 소수의 포괄적 개념 변인을 제외하면, 주로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 형제관계의 질, 어려움, 대인관계, 표현과 적응 등과, 장애형제의 사회성,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등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표 3>).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반 형제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는 유아(약 25%), 아동(약 45%), 청소년(약 20%)으로 나눌 수 있으나 유아와 아동,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연구한 것도 일부 있

<표 3> 형제관계 연구의 변인구성 현황(장애 형제)

독립변인	종속변인	편수
형제구조/지위변인 (장애 형제 유무, 순위, 성별, 연령, 성구성, 터울, 장애유형 등)	비장애형제의 형제관계의 질/상호작용, 자아개념/자아존중감, 우울/적응, 부담/어려움/스트레스, 장애형제의 사회성, 상호작용능력 등	15
비장애아 자신 또는 형제관계를 위한 개입 (지원프로그램, 상호작용전략훈련, 놀이중재,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	형제관계/상호작용,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 우울, 스트레스, 대인관계, 학습 감정/요구 표현 등	10
장애아를 위한 비장애아 중재 (상호작용기술훈련, 언어중재, 형제놀이활동 등)	장애형제의 언어능력, 의사소통능력/기능/역할, 사회적 태도 등	5
가정환경/가족관계/부모, 부모-자녀 관련 요인 (가정정보, 장애/양육에 대한 부모태도,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와 의사소통 등)	장애형제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태도/행동, 형제관계, 자아존중감 등	4
단일 통합 변인 자체에 대한 포괄적 연구 비장애형제의 욕구, 위협요인-보호요인, 가정환경요인, 비장애형제의 삶의 질, 비장애형제의 생활경험 범주화, 형제관련프로그램의 유형/내용 등		6

었다. 장애형제 연구에서는 대상아동 연령대는 아동·청소년(40%), 유아(23%), 아동(13%), 유아·아동(8%), 청소년(8%), 등의 순으로 나왔고, 대상 구성은 장애아의 비장애형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40%), 장애아와 비장애형제 포함(35%), 비장애형제와 어머니 포함(13%), 어머니와 형제 포함(3%), 가족을 포함한 경우(3%) 등의 순으로 나왔다.

연구 설계 및 도구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반형제의 경우,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구들은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를 했다.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연령상 실험관찰이나 면접을 한 경우가 있었으며, 설문지를 사용한 경우는 교사 또는 어머니가 설문지에 응답을 한 것이었다. 사용된 척도 모두를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한 경우는 약 10%,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약 10%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신뢰도 분석만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설계는 횡단적인 연구 설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자료 분석 방법은 변인의 성격에 따라 교차분석, 상관분석,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변인과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상관분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보는 경향으로 연구의 경향성이 변화였으며 2005년 이후 최근의 연구는 중재변인(정유진, 2005)이나 매개변인(김재엽·장민지·조준범, 2008; 김재엽·이지혜·이효정, 2009)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 형제 연구 역시 질문지/척도/검사지 등을 사용한 소위 양적, 횡단적 접근 형태의 연구(45%)가 가장 많았고, 다양한 훈련/활동/치료 등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중재·관찰형 연구(극소수의 실험형 및 단순 관찰 1편 포함)(32.5%)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외에는 면접법(12.5%), 사례연구(5%), 문헌고찰(5%) 등이 있었다. 장애 형

제의 비장애아 대상 연구일 때는 본인 또는 어머니가 응답하는 질문지/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두 형제를 함께 포함시킨 연구는 관찰형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형제/형제들과 어머니를 함께 포함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질문지 또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 결과 관련

1) 일반 형제 관련

형제의 구조적 변인이란 한 가족안의 형제가 가족의 형제 구성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지위로 형제수, 연령차, 출생순위, 성(별)구성을 의미한다. **형제의 구조적 변인**에 따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제자매가 있는 유아들이 외동아보다 친구선택에서 동성/다른 연령의 유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김희진 등, 1995), 사회적 능력 중 주도성과 사교성(우수경, 2009), 대인 행동과 활동참여도(이현정 · 조성연, 2002)가 높으며, 사회정서 발달 중 호기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 윤지영, 2004). 그러나 친구선택에 있어 동성/동일 연령, 이성/동일 연령에 대한 선호 순위(김희진 등, 1995), 인기도(최유경, 1998), 친구관계(최유경, 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최진숙, 2005), 부모의 정서적 지지(양돈규, 2002) 및 양육태도(도미향 · 윤지영, 2004)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 수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형제자매관계는 차이가 있는데, 4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2명의 형제자매에 비하여 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며(남정화, 1998), 부모자녀관계에서는 형제수가 1인일 경우 형제수가 2인 이상인 집단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높았으나(양돈규, 2002), 형제수(2명, 3~5명)에 따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진숙, 2005). 형제수에 따른 아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대체로 외동아 집단이 두 자녀와 세 자녀 집단 아동보다 대인 적응력(박성연 · 도현심, 1993), 정서지능(정길화, 2001), 주도성과 정서인식 능력(박화윤 · 안라리, 2005)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령차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형제간의 연령차가 많이 날수록 형제자매관계에서 보살핌관계(민경희, 1990)와 지위와 권력(남정화, 1998)의 상대적 지위에서 높은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정화, 1998). 또래 간 사회성(김상희 · 박성연, 1990)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박미진 · 김광웅, 2002)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친구관계(최유경, 1998), 또래 간 사회성(김상희 · 박성연, 1990), 부모의 정서적 지지(양돈규, 2002), 공격성(이은주, 1988)이었으며, 사회적 능력(이현정 · 조성연, 2002), 성격(홍연림, 1999), 친사회적 행동(이영주, 1990),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사용(박미진 · 김광웅, 2002)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형제자매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맏이는 막내보다 갈등과 상대적 지위 권력(남정화, 1998; 류왕호 · 이화조, 1999; 변지원, 1999; 이재연 · 이완정, 2006)을, 막내는 맏이보다 경쟁의식(류왕호 · 이화조, 1999; 변지원, 1999)과 부모의 편애(이재연 · 이완정, 2006)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와 둘째 간에 형제 상호작용(기현주, 2002; 기현주 · 김희진, 2004; 기현주 · 조인경 · 박소라, 2001; 이경희, 1991; 최은숙, 1993)과 갈등시 갈등해결전략과 반응(박소라, 2001), 아동이 지각하는 다른 형제의 권력기반(정현숙, 1983)에 차이가 있었다.

형제의 성구성에 따라 유아의 성역할 선호성(신경렬, 1982), 아동의 공격성(이은주, 1988), 유아의 형제자매 관계(류왕호 · 이화조, 1999)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동성형제자와 이성형제자의 형제 성구성별로 성취성, 안정성, 자율성, 활동성의 성격에 대해 차이가 없다(박영인 · 박영호, 2003)고 했으나, 형제 성구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남-남, 남-여, 여-남, 여-여의 형제 성구성별로 성격(홍연립, 1999)과 친사회적 행동(이영주, 1990), 사회적 능력(우수경, 2009)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의 질 중 온정과 친밀감은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은 이성형제 보다는 동성형제와의 관계에서 온정과 친근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정화, 1998; 오현미, 2000). 또한 동성형제, 동성자매, 이성남매집단의 각 집단에서 성별 구성에 따른 순위와 손아래 아동의 형제 상호작용(기현주 · 김희진, 2004; 최은숙, 1993), 갈등해결전략(박미진, 김광웅, 2002), 다른 형제의 권력기반과 권력의 상호작용 행동의 지각(정현숙, 1983)에 차이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형제자매유무, 출생순위, 연령 터울 혹은 형제의 성구성과 같은 형제의 구조적 변인으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의 차를 확인한 연구물은 많은 편이었으며 형제자매가 있는 유아들이 외동아보다 사회적 능력, 대인관계,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의 구조적 변인이 형제의 성격, 능력 혹은 형제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다른 인과 변인들을 조작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제간 상호작용의 본질이나 양이 아동의 발달에 더욱 중요한 예측 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로 **형제관계의 질**이 성격(홍연립, 1999), 외

로움이나 우울(최용주, 1993), 정서지능(이은숙, 2002), 자아존중감(박영애, 1995; 정옥분 · 박영애, 1996; 최형성, 1992), 친구간 갈등해결전략(박미진 · 김광웅, 2002)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온정적이고 친밀한 형제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형제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은 아동의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제와의 애정적 유대를 조절함으로써 또래환경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아동의 외로움을 중재할 수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중재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진, 2005).

형제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아동의 기질(김은지, 1996)이며, 기질보다는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아, 1997; 장휘숙, 2008). 어머니가 합리적 태도로 양육하면 형제는 온정적이고 친밀해지고,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면 갈등적이고 권력적인 형제관계를 나타내었다(하지연, 2008).

형제관계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된 변인은 사회적 능력(전경란, 1990), 또래유능성과 정서능력(박화윤 · 안라리, 2005), 대인관계 성향(남정화, 1998), 정서/행동 문제(이수연 · 이승희, 2008; 정인선, 2006), 부모 애착과 또래애착(이재연 · 이완정, 2006), 어머니 양육행동(변지원, 1999), 그룹홈과 같은 가정 유형(조성연, 2004) 등이었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친밀한 형제관계가 아동의 발달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형제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형제자매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으며,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있을 시 민주적인 대화보다 폭력을 사용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2008; 김지혜, 2005). 형제폭력가해와 관련하여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와 모의 상호작용과 형제간 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이 완전매개로 검증되었고(김재엽 · 강민지 · 조춘범, 2008) 인터넷게임중독과 형제자매폭력에서 현실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형제자매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현실지각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 이지혜 · 이효정, 2009).

단일 변인과 형제관계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나 영향력을 살펴 본 대부분의 연구와 달리 아동과 가족, 상황 특성이 형제간의 질투정서와 비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최윤미, 2004)와 형제간의 갈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적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이영분, 1991)와 형제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이은하, 2006) 및 형제갈등해결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황호춘, 2005)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

2) 장애 형제 관련

서구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장애형제와 자라는 비장애아동의 발달과 문제 및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물들이 이미 집약되어 출간되었으나(Schachter & Stone, 1987; Stoneman & Berman, 1993; Siegel & Silverstein, 1994), 한국 사회에서 장애아 가정의 형제관계는 학자들의 직접적,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장애형제의 그늘에서 자라야 하는 정상아인 비장애형제의 고충과 발달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다음은 장애아의 형제 관련 국내 연구의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형제관계의 질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보면, 장애아를 형제로 둔 아동의 형제지각은 일반아

동들의 형제관계에 비해 부정적임을 발견한 연구들(전인혜, 1999; 신혜정, 2000; 송현정 · 김광웅, 2001; 강위영 · 신혜정, 2001)이 그 반대의 경우(신혜용, 2002) 보다 많다. 그러나 장애아의 형제로서의 경험은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주장(이은영, 2004; 전혜인, 2008; 이미숙 · 권희연, 2009)도 있다. 비장애형제의 형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장애정도, 연령, 성별, 출생순위, 부모의 장애인식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모의 인식과 태도 및 대처방식은 형제간 상호작용과 문제 극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숙, 2001). 이러한 비장애형제에 대한 중재는 형제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이승희, 1998; 정옥인, 2002; 이수향, 2007).

장애아에 대한 비장애형제의 태도에 관한 자료를 보면, 부모/가족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당황, 적대)이었고, 자신의 연령과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김은주, 1993).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형제관련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본인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이 태도는 긍정적(수용/지지 증가, 당황/적대 감소)이었고, 비장애형제의 개인 생활만족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적대적 태도의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에 의한 부담이었다(오정희 · 박중규, 2007). 태도/행동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는 대체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전혜인 · 박은혜, 1998; 안도연, 2001).

비장애형제의 어려움과 적응 부분을 보면, 일반 형제와 달리 장애아를 형제로 둔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의 부족/양보, 장애형제에 대한 양육적지원 부담감, 친구관계의 어려움과 불안, 잦은 심부름 등의 요구와 신체적 돌봄(이영 · 이경희 · 나유미, 1992), 불

편과 피해 감수 및 타인의 시선과 마음 터놓지 못하는 답답함(전혜인, 2008),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 따른 고민(박민경, 1996) 등이 있다.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수용 혼란, 잘못된 죄책감, 슬픔과 우울, 소외감과 서운함, 자신의 장애발생가능성 우려, 자신과 형제의 미래 염려 등이 있다(전혜인, 2008). 우울성향,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 문제, 쾌감 결여, 자아존중감 저하(김경진, 1995) 및 문제행동 지각은 일반 형제보다 자폐아의 형제에서 높게 나왔다(신혜정, 2000). 이와는 달리, 장애아의 형제보다 일반 형제아가 어머니의 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고(권오주, 2008)나, 외현화 행동문제를 발달장애아의 형제보다 일반 형제아가 더 많이 보였다는 연구(신혜용, 2002)도 있다. 소수의 연구들 간의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들은 장애유형, 출생순위, 장애유형별 형제관계, 문제행동 종류 등 다양한 관련변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종합적 고려와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장애아 형제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모의 태도, 형제순위/성별, 장애심각도 등이 지적되었다(이미숙·권희연, 2009). 비장애형제 생활경험의 중심 현상은 ‘답답함’이고, 그 생성 조건은 ‘걸림돌’ 느낌과 ‘창피함’이었으며, 그 강도 결정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따돌림’ 및 ‘사회적 편견’이었다(구자현·한경임, 2008). 이처럼 맥락과 과정을 다루려는 접근은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규명에 유용한 체계적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장애아 형제의 적응유연성은 가족원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가족갈등 완화, 비합리적 신념 수정을 통한 부정적 감정 약화, 주요타자를 통한 취약자아상 탈피, 미래지향적 신념 기반에서의 현실부담감 극복 등의 노력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이지연, 2006), 이는 부모/가족의 중요성 및 교육/상담개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장애아 형제 자신들 역시 부모의 관심을 원하고, 장애형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웃/친구들이 있는 그대로를 봐주기를 원하고 있어(신혜정, 2000) 도움과 지지가 필요함을 드러낸다.

개입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는 형제의 전반적 우울과 행동문제, 신체증상과 흥미상실을 약화시켰고(김수희, 2002), 대인관계 및 학습 향상과 감정/요구의 적절한 표현을 증가시켰으며(홍주연, 1997), 스트레스 감소와 반응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임지향·김선미, 2003)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자아존중감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장애유무/사회인구학적변인/형제지위·구조변인에 따른 형제의 자아개념·자아존중감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일반 형제아보다 자폐아의 형제가 더 높게 나왔고, 성별(신혜정·이한우, 2002; 정은순, 1992)과 장애등급(서진실·박혜준, 2009)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형제순위와는 무관하였다(박규향, 2001). 독립변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은 형제의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오정희·박중규, 2007).

형제의 구조·지위변인 및 장애 변인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관련변인은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지속기간 등이 다루어졌고, 그 외의 구조·지위변인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다루어졌다.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로는, 장애아 형제가 일반 형제보다 부정적 특성/경험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들(김경진, 1995; 전인혜, 1999; 신혜정, 2000)과, 오히려 일반 형제가 더 갈등과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고(신혜용, 2002), 자폐아의 형제는 일반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신혜정 · 이한우, 2002), 일반 형제아가 어머니 기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경험한다(권오주, 2008)는 보고들이 상반되는 결과를 내고 있다. 성 차이는,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김은주, 1993)와 우울(김경진, 1995)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와, 형제의 자아존중감(정은순, 1992), 사회적응(김경진, 1995), 사회적 상호작용(김희영, 2008),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와 문제행동지각(이미숙 · 권희연, 2009)에서는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형제순위 변인에서는, 자폐아는 순위 형제가 형제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신혜정, 2000)하는데 발달장애아는 손아래 형제가 더 많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한다(신혜용, 2002). 이상의 결과들은 형제지위 · 구조변인들의 효과가 장애아 형제의 성격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 중 어느 것에 대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아 본인에 관한 자료에서도, 형제유무는 사회성발달과 무관하다는 연구(최성규, 2004)와 형제가 있는 장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잘 한다는 발견(김희영, 2008)이 불일치를 보인다.

중재의 효과에 관해서 보면, 중재의 실제 표적은 장애아, 비장애형제, 형제관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중재 활동의 직접 대상은 주로 장애아의 형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중재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비장애형제의 경우는 장애형제에 대한 태도 변화(전혜인 · 박은혜, 1998; 안도연, 2001)와 형제상호작용의 긍정적 변화(이수향, 2007), 대인관계 향상과 적절한 표현 증가(홍주연, 1997), 스트레스 감소와 긍정적 반응 증가(임지향 · 김선미, 2003), 우울/행동문제/신체증상 등의 감소(김수희, 2002)가 확인되었다. 장애아의 경우도 형제와 또래에 대한 표현능력 향상(송영혜 · 정은희, 1998), 사회적 상호작용능력 증가(이은형 · 오

세철, 2008), 주시행동의 빈도와 지속도 증가(신혜정, 1997), 언어관련능력(황보명, 2003) 및 의사소통기능 향상(한경임 · 임민숙, 2006)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가정환경/가족관계 관련 변인의 효과를 보면, 장애아 형제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소로 강조된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식 및 부모의 장애 인식(김영숙, 2001; 오정희 · 박중규, 2007; 구자현 · 한경임, 2008; 이미숙 · 권희연, 2009), 부모-자녀관계(송현정 · 김광웅, 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김세라, 2008)이었고, 더불어 지적된 것은 가정의 전반적인 긍정적 정서분위기와 긍정적 물리환경 및 다양한 경험 제공(김은주, 1993), 긍정적 가족상호작용과 가족갈등(이지연, 2006), 부부관계(송현정 · 김광웅, 2001), 장애형제 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에 의한 부담(오정희 · 박중규, 2007) 등이 지적되었다.

II. 연구쟁점

일반 형제 관련 국내 연구들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앞으로 형제관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형제 관련 연구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쟁점이다. 연구된 형제는 양쪽 부모와 거주하는 완전한 생물학적 형제들만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족 해체나 혼합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친형제, 이복 · 이부형제, 계형제, 입양형제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러한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형제들이 보이는 서로 다른 특성들은 이혼이나 재혼과 같은 부모의 결혼 지위의 변동과 같은 사건 외에도 형제의 만성 질병이나 죽음, 사회 · 경제 · 정치적 변화와 그 결과 등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결정적 사건들의 영향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다. 형제관계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결정적 사건들의 영향력이 설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대부분은 형제가 한 명이거나 그 이상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형제가 둘 이상인 아동에게 그들 중 한 명을 자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선호나 최근 경험 등의 영향이 개입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자료와 결과의 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연구자들은 형제 크기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가족 안의 한 명의 형제를 대상으로 하여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경우 한 명의 형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자매관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사람의 시각으로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한계가 있다. 형제관계에 관한 연구는 형제관계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한 구성원에 의한 보고는 편견과 부정확성을 낳을 수 있으며 형제간 감정의 상호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제 중 일방적인 한사람의 시각으로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한점을 극복할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관계의 영향력은 배제하고 형제의 구조적 변인이나 형제간의 상호작용에 한정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족은 개별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상호 연관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성격과 상호작용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

한 구성 요소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족 내의 한 구성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형제자매관계를 개념화할 때, 일차적으로 형제 집단은 더 큰 가족 체계의 맥락 안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내 다른 체계의 영향력과 가족외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형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학교 환경, 면대면 상호작용, 실험실이나 현장경험과 같은 관찰이 가능한 연구들을 수행하기 용이하므로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중년기와 노년기 형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형성 단계, 유지 단계, 해체 단계를 가지며 변화해 간다. 형제관계도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함께 변화하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형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제간 갈등이나 형제간 폭력 가해 등 역기능적인 형제관계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이나 정책적 실제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 형제 관련 연구를 고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장애아 형제와 더불어 자라고 있는 정상 아동들에 대한 전문가와 사회의, 특히 아동학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평범한 정상아도 장애아도 아닌 그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기 어렵고 불평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잠정적 문제소유자이다. 그러나 이들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짧고 소량이며, 아동학 이외의 분야에서 주로 해온 것이고, 아직 연구변인이

나 방법론의 다양화,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서 체계적인 메타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앞서 요약·제시된 관련 국내 연구들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앞으로 장애 형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장애아를 포함하는 형제의 형제관계와 발달은 누구의 관심 대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아동학은 아니었고, 연구물의 수(0편)가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이제 그 아동들도 아동학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권리가, 우리에게서는 책임이 있다.

둘째, 장애아의 형제의 발달과 적응은 장애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 양육방식과 의사소통, 가정의 정서분위기와 물리적 환경, 부모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맥락변인과 과정적 접근을 통한 문제의 규명과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맥락적 접근과 과정 규명을 위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것은 시급히 개선·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보다 다양한 체계의 긍정적, 부정적 기여요인들과 그들 간 상호작용 및 기여양상의 규명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구도의 연구와 그를 통한 통합적 접근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장애아를 포함하는 형제관계의 연구에서 형제는 문제의 일부인가 해결책의 일부인가에 대한 판단은 연구와 중재의 계획과 수행에서 불가피한 선택 사안이 될 수가 있으나,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균형과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임을 인정하고 연구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장애아의 형제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이 목적이 될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개입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더불어, 초기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장애아 형제의 부담과 적응에는 장애 지속기간이 큰 영향을 준다는 발견은 장애 발생 초기 개입의 필요성과 그 잠재적 효과를 시사해주는 것인 만큼, 단순 중재효과 검증이나 기존의 지위·구조변인 중심의 기술 연구를 넘어서, 혼란과 변화 부담이 클 장애 발생 초기개입의 근거와 방법관련 자료 확보를 도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형제관계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관계평정척도나 성인평가형 형제관계척도 또는 관찰연구 도구들은 비장애 형제들 간의 관계/상호작용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장애 형제 관계 연구도구들을 개발할 필요가 제기된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이상의 형제관계 연구 현황과 쟁점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실제적, 정책적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일반 형제의 경우는, 첫째, 자녀수의 감소로 한 자녀 가족이 보편화되어 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인 아동의 원만한 발달을 위한 다각적인 지도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형제간 갈등이나 형제간 폭력 등 역기능적인 형제관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청소년 복지관 등)의 선정 및 홍보가 필요하며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범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이 활성화되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장애 형제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장애아의 형제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상의 불편과 부담은 물론이고 그 발달적 함의를 간과할 수 없어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 및 형제의 입장과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인식 개선을 앞당겨야 한다.

둘째, 장애 형제에 있어서의 형제관계와 비장애 아동층의 발달 및 적응에 특히 부모의 인식/태도와 양육행동이 중요한 만큼, 부모교육/상담에서 기존의 장애자녀 관련 내용만이 아니라 비장애 자녀의 감정과 욕구 및 역할과 고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비장애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의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게 하여 새로운 문제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없도록 돕는다.

셋째, 장애 형제를 위한 개입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형제의 혼란과 부담이 큰 발생 초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중재 기간을 현실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일회적 또는 단편적 개입을 넘어선 실효성 있고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재프로그램들의 주목적은 형제관계 개선 및 장애아와 비장애형제의 발달/적응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주 대상이 대부분 비장애형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다체계적·통합적 중재의 부재를 반증할 뿐 아니라, 비장애형제를 장애아가 지닌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비장애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우선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가정적,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 가정 정상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행복권 구현을 위한 아동학 관련 전문가들의 자발적 관심과 더불어, 정부와 사회의 구체적인 고민과 현명한 지원이 필요해

지는 시점이다. 장애아만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도 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큰 틀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위영·신혜정(2001). 자폐아동의 형제관계 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17(1), 381-412.
- 구자현·한경임(2008). 장애아동 비장애 형제 생활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지체부자유아교육, 51(3), 199-218.
- 권오주(2008). 장애형제자매유무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기대, 외로움, 스트레스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현주(2002). 유아의 출생 순위, 성에 따른 형제 상호작용의 질. 한국영유아보육학, 31, 203-224.
- 기현주·조인경·박소라(2001). 출생순위에 따른 형제의 요구 및 반응전략. 한국영유아보육학, 26, 65-87.
- 기현주·김희진(2004). 어머니의 형제대우, 형제 상호작용, 그리고 또래 유능성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4), 5-32.
- 기현주·김희진(2004). 출생순위, 형제 성구성, 형제기질조합에 따른 형제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5(4), 49-70.
- 김경진(1995). 자폐아 형제의 우울과 사회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2003). 여자 대학생의 형제관계가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손아래 여자 형제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상희(1982).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희·박성연(1990). 형제간 및 또래 간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가족 인구학적 변인. 아동학회지, 11

- (2), 59-81. (10)
- 김성희(2008). 청소년의 형제자매 신체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47-62.
- 김세라(2008). 비장애형제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수희(2002).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형제지원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우울감과 장애형제에 대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영숙(2001).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장애아와 비장애형제자매관계의 생활환경에 대한 고찰. *정신지체연구*, 3, 145-159.
- 김영희(1999). 출생 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영어 학습 성취도 차이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아(1997).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기질과 형제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주(1993). 일반 형제의 장애 형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지(1996). 청소년의 기질이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재엽 · 강민지 · 조춘범(2008). 청소년의 형제자매폭력에 대한 부모-자녀상호관계 연구-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3), 207-236.
- 김재엽 · 이지혜 · 이효정(2009).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이 현실지각을 매개로 하여 형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3), 25-54.
- 김지혜(2005). 청소년기 형제자매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영(2008). 학령기 전 발달 장애 아동에서 부모양육태도 및 형제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진 · 이승연 · 이은화 · 김난실(1995). 성과 연령과 형제 자매의 유무가 유아의 친구 선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5(1), 5-20.
- 남정화(1998). 형제자매관계의 특성과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도미향 · 윤지영(2004). 외동아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류왕효 · 이화조(1999). 유아의 형제자매 구성에 따른 형제자매 관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9, 1-18.
- 민경희(1990). 도시-농촌에서의 형제자매관계 성격 비교. *한국가족학회지*, 2, 91-133.
- 박규향(2001). 자폐성 장애아 형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미진 · 김광웅(2002). 형제의 지위변인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15(2), 79-105.
- 박민경(1996). 장애형제를 둔 정상형제자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성연 · 도현심(1993).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35-47.
- 박소라(2001). 형제갈등의 해결과정과 어머니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소라 · 김희진(2001). 형제간 상호작용의 특성-갈등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6(2), 447-462.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영애(1996). 아동의 형제관계와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315-328.
- 박영인 · 박영호(2003). 성별과 형제유형에 따른 아동의 성격, 성역할 정체성 및 자아존중감. *인문논총*, 17, 61-78.
- 박진희(2005).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형제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화윤·안라리(2005). 유아의 형제관계의 질과 또래 유능성 및 정서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91-108.
- 변지원(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명석(2004). 장애아동 형제의 부담감이 가족적응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201-218.
- 서진실·박혜준(2009).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93-115.
- 송영혜·정은희(1998). 형제 놀이를 이용한 ADHD 아동의 놀이치료사례. *놀이치료연구*, 2(1), 99-119.
- 송현정·김광웅(2001).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1), 205-223.
- 신경렬(1982). 유아의 성역할 선호성에 대한 연구 : 형제자매의 성구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혜용(2002). 발달장애인 형제를 가진 비장애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형제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혜정(1997). 자폐유아의 주시행동 향상을 위한 형제자매 중재효과. *정서·학습장애연구*, 13(1), 137-154.
- 신혜정(2000). 자폐아동의 형제관계 및 형제자매들의 심리사회 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혜정·이한우(2002). 자폐성 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자아개념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4(1), 203-227.
- 안도연(2001). 형제간 구조적 놀이가 비장애형제의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양동균(2002). 청소년의 형제 변인에 따른 지각된 정서적 지지. *청소년복지연구*, 4(2), 67-87.
- 양진희·최기영(2005). 5세 유아의 부모와 형제 관계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365-397.
- 엄정애·김희진(2003). 3-5세 형제간 갈등에서의 어머니 중재와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1(1), 1-13.
- 오정희·박중규(2007). 장애형제관련 스트레스 요인 및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수준, 부모양육태도가 형제관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과학연구*, 25(2), 35-52.
- 오현미(2000). 아동의 외로움과 형제 및 친구 관계의 질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우명자(1997). 특수아동 형제집단과 일반아동 형제집단의 형제관계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우수경(2009). 형제 수, 형제 성구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367-388.
- 유도진(2005). 청소년의 가족관과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한·독간의 문화내적 비교연구. *가족과 문화*, 17(2), 259-283.
- 유연일(2007). 그림책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에서의 요구전략과 대응전략 : 부모-자녀 관계, 형제 관계,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경희(1991).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관찰연구 : 형제지위 변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미숙·권희연(2009).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긍정적 적응 및 발달을 위한 방안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5(1), 141-163.
- 이수연·이승희(2008). 청소년의 형제, 자매관계와 정서, 행동문제의 관련성. *정서행동장애연구*, 24(2), 27-48.
- 이수향(2007).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독서치료가 형제관계와 형제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승희(1998). 비장애형제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전략 중재가 형제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분(1991). 형제간의 갈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치료적 접근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1,

- 115-130.
- 이영 · 이경희 · 나유미(1992). 장애아의 형제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4, 75-98.
-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28(2), 107-118.
- 이윤주(1999). 형제간 갈등에 대한 어머니의 해결전략과 신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화 · 권진옥(2002). 장애아동형제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8, 59-85.
- 이은숙(2002). 부모양육태도, 형제관계 및 정서기능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구논문.
- 이은영(2003). 자폐아동 학령기 형제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1988). 아동의 형제변인·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과 공격성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2001). 비장애형제와 장애아동형제간 상호작용 유형 관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하(2006). 형제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 *아동학회지*, 27(1), 45-65.
- 이은형 · 오세철(2008). 형제간 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의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지체부자유아교육*, 51(4), 41-58.
- 이재연 · 이완정(2006).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 구성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29-146.
- 이정순(2008). 형제 갈등을 중재하는 부모의 인식과 행동 흐름에 관한 연구. *칼빈논단*, 1(27), 325-350.
- 이지선(1994).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자매 역할 기대 및 수행과 형제자매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정 · 조성연(2002). 형제·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48.
- 임지향 · 김선미(2003). 가족미술치료가 정신지체학생 어머니와 비장애형제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0(2), 273-296.
- 장휘숙(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1(1), 69-87.
- 전경란(1990). 아동이 지각한 형제관계의 질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은주 · 이영순(2008). 형제자매관계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1, 213-234.
- 전인혜(199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형제관계 비교연구 : 가족체계관점에서 의 형제관계 비교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인(2008).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삶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2), 159-179.
- 전혜인 · 박은혜(1998). 장애아동의 형제를 위한 형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27, 129-144.
- 정길화(2001). 가족구성 형태 및 형제자매 수와 정서기능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연수(2001). 형제의 성구성, 연령터울에 따른 형제간 갈등과 어머니의 해결전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 박영애(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연구 -자존감에 대한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의 독립적 기여와 상호작용 효과. *아동학회지*, 17(1), 189-212.
- 정옥인(2002). 비장애 형제에 대한 중재를 통한 장애 유아-비장애형제간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진(2005). 또래관계와 어머니 및 형제와의 애정적

-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은순(1992). 정신지체아 정상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태도에 대한 지각.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인선(2006).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현숙(1983). 형제구성에 따른 권력기반과 권력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성연(2004). 그룹홈과 일반가정 아동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형제자매관계 및 사회적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81-391.
- 차은미(2000). 형제간 기질결합형태와 기질조화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성규(2004). 형제자매의 유무에 기초한 정신지체학생과 자폐학생의 사회성과 언어발달의 상관관계. 언어치료연구, 13(3), 75-92.
- 최용주(1993). 학령기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 학교친구, 학교외 친구,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유경(1998).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윤미(2004). 아동과 가족, 상황 특성이 형제간의 질투정서와 비조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은숙(1993). 형제간 상호작용에서의 유아의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진숙(2005). 형제변인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형성(1992). 아동이 지각하는 형제 관계와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영희(2005).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1), 43-57.
- 하지연(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형제 갈등 상황에서의 개입행동이 유아의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경임 · 임민숙(2006). 형제에 대한 상호작용 기술 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8(1), 1-20.
- 홍연림(1999). 형제지위변인과 형제관계가 아동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주연(1997). 장애아 형제로 인해 상처받은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1(1), 87-100.
- 황보명(2003). 형제 참여 언어중재가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성과학, 10(3), 65-78.
- 황호춘(2005). 형제갈등해결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서울불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Rowe, D. C., & Elam, P. (1987). Siblings and Mental Illness : Heredity vs. Environment. in F. F. Schachter and R. K. Stone(Eds). *Practical Concerns About Siblings. Bridging the Research-Practice Gap*. The Haworth Press. 115-130.
- Schachter, F. F., & Stone R. K.(Eds) (1987). *Practical Concerns About Siblings. Bridging the Research-Practice Gap*. The Haworth Press.
- Siegel, B., & Silverstein, S. (1994). *What About Me? Growing Up With a Developmentally Disabled Sibling*. Plenum Press.
- Stoneman, Z., & Berman, P. W. (1993). *The Effects of Mental Retardation, Disability, and Illness on Sibling Relationships. Research Issues and Challenges*.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2009년 8월 11일 투고, 2009년 10월 20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